

시리즈 오디오 기기

디지털 소스기의 황태자, 심오디오 780D



플레인지 · 2만 팔로워
2016.01.20. 17:50 | 1,907 읽음

“
심오디오(Simaudio) Neo 780D DSD
”



하이엔드. 누구나 꿈꾸는 선망의 대상이다. 오디오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이엔드란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정점을 말하는 것이니 말이다. 이것은 굳이 비싼 것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브랜드만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다. 분명 하이엔드라는 것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며 추구하는 영역이 다른 부분이 존재해야 된다. 아마추어처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과거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심오디오에 대한 하이엔드 유저들 사이의 평가를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다. 그렇지만 요즘은 어떠한가? 심오디오의 최근 소스기들을 섭렵해 봤다면 심오디오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심오디오의 DAC 제품들은 모두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탑재가 가능하며 거기다 TIDAL 까지 자체 앱에서 지원이 되도록 발전하고 있다. 최소한 심오디오에서만큼은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음질이 더 좋은지 DAC가 음질이 더 좋은지에 대한 걱정이나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브랜드의 정체성이나 추구하는 차별화 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심오디오가 과거 언제부터 소스기가 강한 브랜드가 되었을까? 그것은 확실히 경험을 해보고 나면 인정하게 된다는 정도로 일단 운을 띄워보도록 하자.



심오디오의 앰프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확연히 절도가 있고 정교하며 또렷하고도 치밀하다는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다소 까칠하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이미지 자체가 CDP나 DAC 등을 잘 만들 것이라는 이미지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소스기 시장에서는 분명 디지털 소스기에 국한하여 앰프를 따로 제작하지 않더라도 디지털 소스기쪽으로만 강한 제작사들이 따로 있기는 하다. 그리고 상당수는 그러한 제작사만이 하이엔드 소스기 시장에서 인정할만 하다는 것도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앰프의 이미지가 강했던 심오디오가 이토록 디지털 소스기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는 브랜드가 되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디지털 소스기 전문 브랜드의 제품만 사용해 오던 유저들 사이에서는 설마 라고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판매량을 보면 650D나 750D만으로도 심오디오는 하이엔드급 소스기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브랜드가 되었고, 380D 까지도 포함하면 그 어떤 하이엔드 제작사보다도 관련 매출이 높은 브랜드가 되었다.

650D가 국내에서는 꽤나 성공을 했고, 과연 심오디오가 650D와 750D를 대체할 후속품을 어느정도로 개발해야 더 나은 제품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거절과 이모은 가게 디

공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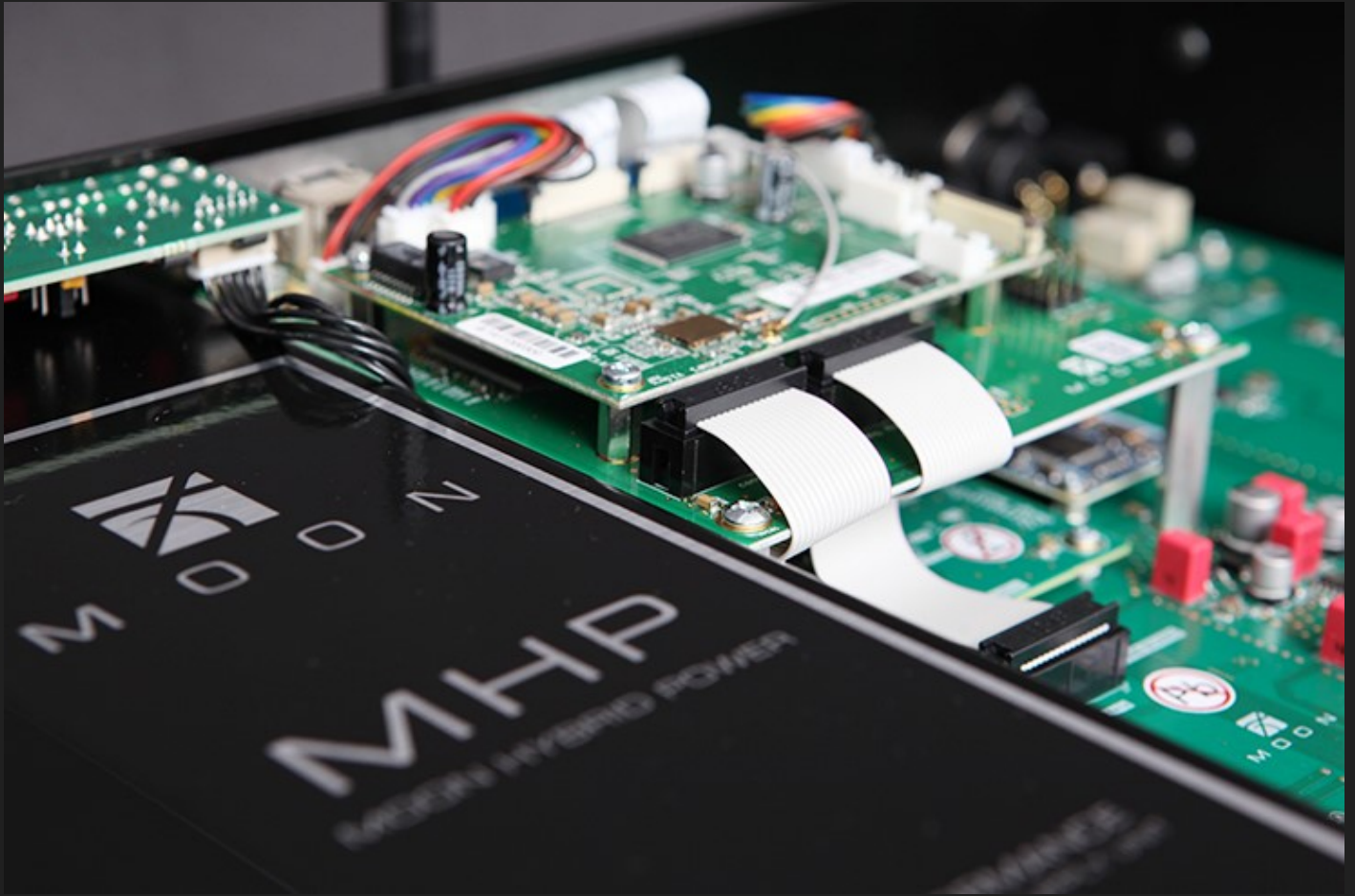
▲ 심오디오(Simaudio) 780D

하이엔드라고 불친절하지 않다 WIFI에 블루투스까지 다 된다

780D는 650D와는 달리 CDP 기능을 뺀 독립된 네트워크 플레이어이자 DAC이다. 바꿔서 말하자면 DAC에 네트워크 플레이어 기능을 넣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Apt-X 블루투스 기능과 TIDAL 서비스까지 연동이 되도록 만들었다.

최근의 PCFI 분위기가 단순 DAC를 사용하는 분위기에서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그 분위기가 넘어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단순 네트워크 플레이어 기능을 넘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한 블루투스 스트리밍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음원을 당장에 구하지 못하는 유저들을 위해 TIDAL 등의 별도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자체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세팅해 놓는 것이 유행인데, 심오디오 780D는 하이엔드 기종이면서 이러한 서비스적인 부분까지 완벽하게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하이엔드 제품이면 이래가 으

심오디오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용 Mind App도 버전 웹그레이드가 되어 디자인과 인터페이스, 완성도가 대폭 향상되었다. 버전 1.0일 때는 분명 개선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심오디오의 Mind가 대외적으로 강하게 어필되지는 못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사용 편의성이 대폭 향상이 되어 이제는 네트워크 플레이어 관련 APP들이 가장 우수하다는 대표적인 제품들과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검색 기능도 세련되고 편리하게 다 바뀌었으며, TIDAL의 사용 편의성도 우수하다. 속도는 본래가 과거 Mind 1.0 APP 때부터 제일 빠른 편이었다.



더블 ES9018s를 이용한 최상의 기계적, 전자적 완성도

풀밸런스드 구성에 듀얼 모노럴 설계를 통해 기본을 탄탄하게 갖추고 있다. 구형 대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부품이나 회로도 거의 없다. 거의 모든 부분을 한차원 이상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으며 새로 개발했다. 대표적으로 전원부도 그렇다. MHP라는 새로운 방식의 전원부는 Moon Hybrid Power라는 것인데 기본

적으로 여겨지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을 하이브리드 직송하게끔 한 방식도 이번이 처음인데 이 두군데 대해서 심오디오희에서는 상당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는 듯하다.

메인 DAC칩은 현존하는 최고의 DAC칩으로 자타의 공인을 받고 있는 ESS사의 ES9018s Sabre32 32-bit Hyperstream™ DAC 칩을 듀얼로 탑재했다. 여기에 DAC 설계에서 빠트릴 수 없는 클럭의 경우도 펌토 클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비슷한 그레이드의 DAC 제품에 들어갈 수 있는 클럭 중에 현존하는 가장 우수한 수준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클럭임에도 분명하다. 참고로 펌토는 0.000 000 000 001 초를 말한다.

DAC칩이야 ES9018s가 워낙에 유명하다보니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 심오디오는 650D시절에도 ES9018도 아닌 ES9016을 가지고도 대단한 완성도의 음을 만들어 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650D에는 아예 USB컨트롤러 칩이나 DSP프로세서는 탑재하지도 않고 자체 프로세서 로직을 설계해서 그정도 음을 만들어 냈다는 것인데, 해외에서는 그만큼 심오디오가 ESS사의 DAC칩에 대한 이해도가 좋다고 인정을 하더라는 것이다.

ES9018s는 자타가 공인하는 현존하는 최고의 DAC칩이라는 것은 맞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개발/설계하면서 780D를 위해 더블로 탑재를 하고 있는데, 심오디오희에서는 ES9018s에서 끌어낼 수 있는 많은 것을 이끌어 냈다고 자신하고 있다.



격의 차이는 분명하다

780D의 음을 순수하게 이해하기 위해 여러가지 시도를 했다. 매칭을 바꿔가면서 테스트하는 것은 기본이며 약간의 에이징도 해봤다. 케이블 바꾸는 것도 당연한 수준이다. 첫 인상이 음의 약간 얇고 가벼운 느낌이어서 앰프까지 얇고 가벼운 성향의 앰프를 물리는 것이 개인적인 취향에는 그다지 잘 맞지 않았다. 그래서 앰프 매칭을 그리폰이나 패스 등으로 바꿔서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렇게 했더니 비로소 놀라움의 사운드가 나를 현혹시켰다. 780D는 스피커든 앰프든 살집이나 음의 풍부함과 여운, 밀도감이나 배음 등을 더해주면 그 정보와 배음의 사이사이에 빛을 발하는 결의 느낌을 더해준다. 이 느낌이 천만원 미만 소스기들과는 비교하기 힘든 확연히 향상된 디테일과 미려함을 제공한다. 물론 이런 멘트는 이보다 더 저렴한 기기들을 소개하면서도 흔하게 많이들 쓰던 멘트이긴 하다. 그렇지만 다른 기기들에 대해서는 어땀어땀한 성향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이야기 했다면 780D는 분명 음의 해상력은 누가 듣더라도 청감상 큰폭으로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음을 단순하게 더 선명하고 덜 선명하고의 수준 차이를 뛰어넘는.. 대폭의 하모닉스와 음의 순도를 제공하면서 전체적인 음악의 표현 수위를

심오디오가 놓기던 이미지에서 확실히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음을 어렵지 않게 감지하게 된다. 소스기가 바꿔줄 수 있는 전체 음의 음조나 분위기가 적잖이 바뀐다. 앰프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최근의 심오디오 소스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정말 많이 다르긴 다르다.

오래된 소스에 대한 음질 향상 효과가 꽤 좋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당연히 650D보다는 확연하게 낫다. 650D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안 그럴 수가 없다.



좋은 피를 유기적으로 전달해 주는 느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오디오가 5미터 정도의 스테이징을 발휘해 주며 5미터까지는 3천가지 음을 뿌려 주고 3미터까지는 2천가지 음을 뿌려준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그 2천가지 음과 3천가지 음에 각각 피의 전달율이 92%가량 되었었다고 가정하자. 피, 일종의 에너지이자 정보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라고 하자. 피의 전달율이 90%가 넘으면 나쁘지 않은 우수한 수치인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5천가지 음에 퍼의 전달률이 97%는 된다고 자랑해 보고 싶다. 퍼의 전달률이 좋기 때문에 그 모든 음의 해상력이 좋으면서 그 모든 해상력의 표현 하나하나에 생기가 살아있고, 그 표현 하나하나가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유기적인 자연스러움이 있다. 유기적이라는 말은 기계적이거나 전자적이라는 말의 반댓말이다. 유기적인 자연스러움이 92%에서 97%면 그만큼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다.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다.

과자를 먹을 때보다는 빵을 먹을 때가 그나마 좀 더 유기적이고 자연스러운 포만감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당연히 한국 사람이라면 빵보다는 떡이나 밥을 먹는게 더 유기적이고 더 자연스러운 포만감을 얻을 수 있다.

거기에 녹색 나물, 빨강색 김치, 갈색 고기, 파랑색에 누렇게 익은 생선, 주황색의 찌개까지 곁들여진 느낌인 것이다. 모든 재료는 최고의 신선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갓 지은 음식들이었다. 한국식으로 이야기 하자면 그런 것이지 이런 음의 신선한 느낌은 확실히 신선한 과일에 과도하게 상큼하지 않지만 입맛을 충분히 살려주는 샐러드를 먹는 느낌과도 많이 비슷하다.



M O O N
by SIMAUDIO



상상 속의 하이엔드 소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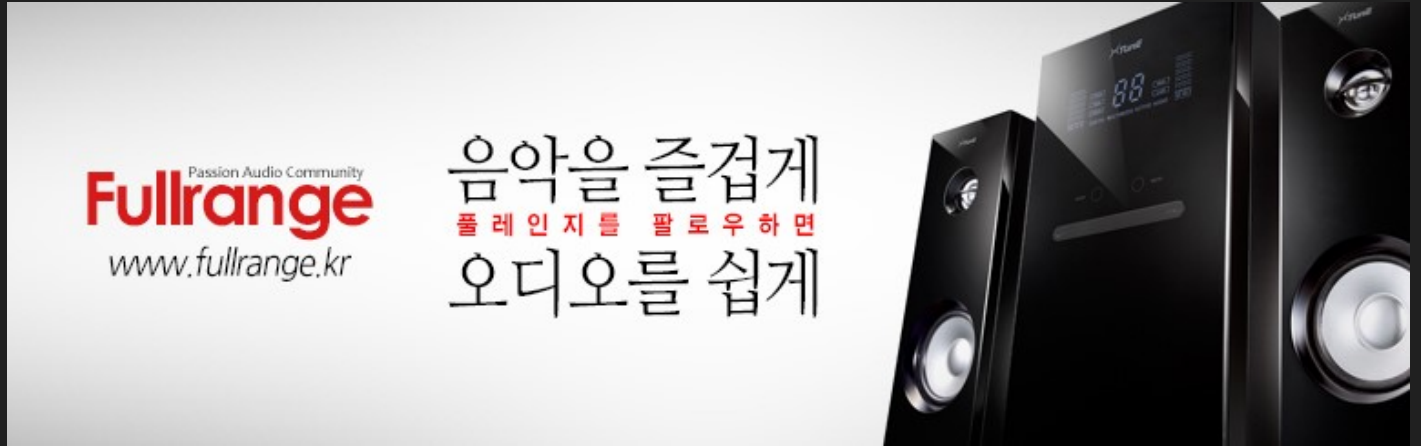
수년 전부터 이런 기기가 나와주길 바라고 있었다. 음질의 격은 확실히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좋아야 하지만 추가로 다른 기기를 붙이지 않아도 될만큼 최신 기능까지 완벽해야 한다. 하다 못해 블루투스 기능도 안되는 것보다는 당연히 되는게 좋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고가 기종을 사용하면서 음질이 떨어지는 블루투스 기능을 쓸 일이 있느냐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마트폰의 음악용으로서의 활용 범위가 무궁히 넓어지고 있다보니 WIFI 기능이나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있는 것이 낫더라는 것이다. 하다못해 라디오를 듣더라도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APP으로 재생을 하고 블루투스 기능으로 듣고 있는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블루투스도 속주 모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음질의 수준이 또 달라진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물론 블루투스 기능이 좋다고 해서 천만원대 소스기를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 음질이 확실히 좋다. 짧게 말하자면 음의 해상력과 순도, 표현력의 수준이 어찌나 월등한지. 여기서 말하는 해상력이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순도라는 것은 해상력과는 별개로 그 많은 정보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취향상의 차이겠지만 나는 과거 CDP 시대 때도 당시만 하더라도 가장 고가의 CDP들 중에 마크레빈슨의 CDP 성향을 좋아했었는데 해상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결감이나 촉감이 차갑게 느껴지거나 과도하게 이탈감만 강조된 음은 전혀 음악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의 디지털 기기들이 과거의 구형 CDP보다도 해상력이나 분해력은 더 좋아진 부분이 있는데 780D는 그 해상력과 순도의 격차가 대단히 크면서도 단순히 오디오적인 느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세한 표현력에 실기한 촉감도 있고 은은한 하모닉스도 있고 반짝반짝 유려한 느낌까지 있고, 어쨌든 밝고 맑은 순도를 동반한 전체적인 표현력의 수준이 대단히 높다. 이럴 때나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는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다. 항상 듣던 음악을 모두 새롭게 다시 들을만큼 음질이 새롭다는 말은 수도 없는 리뷰나 사용기에서 봐왔던 표현이지만 수일에 걸쳐 매칭을 맞춰놓고 듣는 음악들은 정말 말 그대로 흔한 음악도 다시 듣는 재미를 가슴이 뿌듯하리만큼 다시 느끼게 해주었다.

혹여 매칭상의 포인트를 한가지 언급하자면, 스피커나 앰프쪽에서 음이 너무 가벼워지고 허전해 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본 필자가 느낀 그대로 못 느낄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 오디오 기기는 언제나 음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꾸준히 매칭과 세팅에 힘을 써야 한다.

경도 정승에 제사를 좀 더 위엄천천하게 만들었다면 가격이 2천만원은 그냥 넘어가고 최대 3천만원까지 책정했을 수도 있다.

역시나 하이엔드의 길은 쉽지도 않을 뿐더러 한 사람이 제대로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 780D를 사용하면 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 디지털 소스기가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궁무진하며 우리 오디오 매니아들이 이런 실력있는 제작사에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역시나 앞으로 더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음악 #취미 #오디오 #플레인지 #심오디오 #Simaudio #780D #DSD #황태자 #디지털

SmartEditor 3.0으로 쓴 글입니다. 자세히보기 >

5 ...
 댓글



플레인지

팔로워 29,103 · 2만 팔로워

오디오파일들을 위한 전문 오디오웹진, 플레인지의 공식 포스트입니다.